

면세점 제도개선안 공개논의를 앞두고...

News / Issue

- 16일, 정부 주도로 면세점 제도 개선안 공개 논의 예정

Implication

- 16일 오후 3시부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 예정
 -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0.05%)보다 10~20배 인상하거나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0.5~1.0%)하는 내용 또한 검토될 전망
 - 16일 공청회 이후 31일까지 면세점 사업 관련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4월 중 최종안 확정 예정
-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신규 면세점 특허권 확보 업체: 신규업체들이 영업 안정화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규 특허 허용은 불공평하다는 주장
 - 지난 해 면세점 특허권 입찰 실패 업체: 시장 경쟁을 통해 면세점 간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입장
 - 해외 명품 브랜드: 면세 사업자 간 브랜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입점 여부를 놓고 유리한 조건을 살펴보는 상황

Call

- 1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우려 및 현행 면세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자는 요구 등이 부각되고 있음
- 2 이와 더불어 중국이 해외소비를 자국 내로 전환 시키기 위해 중국 내 19개 입국장 면세점 신설 계획을 확정, 중장기적으로 국내 면세점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 질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20% 이상 기대 -20% ~ +20% 기대 -20% 이하 기대	92.1% 7.9%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15. 1. 1 ~ 201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